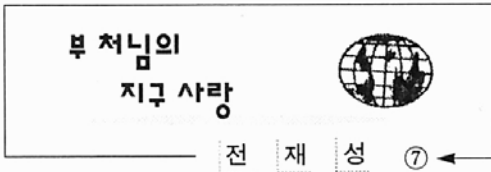


부처님께서는 상어하경의 계상용(界相應)에서 말씀하셨다. "수행승들이여, 만약 여기 땅의 세계가 괴로움을 수반하고 괴로움을 드러내고 즐거움을 드러내지 않는, 순전한 괴로움이라면, 뭇살들은 땅의 세계에 탐착하지 않을 것이다. 수행승들이여, 그러나 실로 땅의 세계가 즐거움을 수반하고 즐거움을 드러내고 괴로움을 드러내지 않으며, 즐거운 까닭으로 뭇살들의 땅의 세계에 탐착한다"

많은 새들과 곤충들은 농사를 짓는데 해로운 해충을 애에준다. 여섯째, 숲은 오염된 지상의 공기의 가장 탁월한 필터역할을 하여 공기를 정화해 준다. 평지보다 숲속에서 공기를 정화시키는 양은 20배가량 높다. 일곱째, 미세기후에 좋은 영향을 준다. 숲은 더운 여름이나 추운 겨울에도 바람보다 시원하거나 온화한 기후를 유지하여 주며 도회지나 경지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 여덟째, 물을 정화하고 보존하는 역할을 한다. 숲의 나무잔뿌리가 있는 땅은 물을 걸러 맑은 샘이 되게할 뿐만 아니라 그 물을 보존하는 능력을 증대시켜 아무

한 만큼 돌이킬 수 없는 땅의 재앙을 불러오게 되었다. 따라서 우리는 땅의 세계에 대한 탐착을 버리도록 있는 그대로의 세계로써 바라보지 않으면 안된다. 부처님은 땅의 세계가 즐겁다는 것은 진도된 망상이며 그 본질은 괴로움이라고 말씀하신 것에 주

것이더라고 말씀하셨다. 생각해 보라, 1그램의 흙속에서도 10억 미생들의 미시적 생노병사가 이 수십억 인구가 사는 거시적 생노병사의 세계처럼 이루어지는 것이 땅의 세계의 실상인 것이다. 저비의 대상이 될 자인정 어찌 즐거움의 세



숲은 먹거리 등 많은 혜택제공 인간 탐욕이 땅의 황폐화 불러

리 비가 많이 와도 홍수를 일으키지 않으며 가뭄이 들어도 보존된 물을 일정하게 방출함으로써 가뭄의 재해를 방지한다. 그러나 인간은 이러한 땅의 즐거움과 혜택에 고도하게 탐착한 나머지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여 함락

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부처님께서는도 일찍이 '모든 조건적으로 형성된 것은 무상하고(諸行無常), 모든 법은 실체가 없으며(諸法無我), 모든 것은 괴로움(一切皆苦)'라고 설교하셨듯이, 땅의 세계도 마찬가지로 실체로는 무상하고 실체가 없으며 괴로운

게로 인간의 탐착의 대상이 될 수 있겠는가? 그러나 괴로움을 즐거움으로 보는 진도된 망상의 철학같은 것은 '땅의 세계에 향락하는 자는 괴로움을 향락하는 것이며, 그 괴로움을 향락하는 자는 괴로움으로 부터 벗어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다.



산림욕의 대상으로 삼아 착취할 때 자연은 병든다.

을 탐욕의 대상으로 삼아 착취하고 황폐화시켜 오고있는 것이다. 부처님은 "땅의 세계에 향락하는 자는 괴로움을 향락하는 자는 괴로움으로 부터 벗어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다.

'95 신행 캠페인 참다운 불자가 됩시다

5계는 불교인이 지켜야 할 다섯 가지 삶의 기본자세를 담고 있는 불교인의 생활윤리다. ① 모든 생명을 존중하고 억압하거나 손상하거나 죽이지 않으며 ② 아낌없이 베풀어주고 결코 남의 물건을 빼앗지 말 것이며 ③ 청정행을 할 것이며, 결코 사음을 하지 않으며 ④ 진실한 말을 하고 결코 망령된 말을 하지 않으며 ⑤ 바른 마음을 지키고

조사한 설문에서 불자들의 71%가 5계를 받았다고 답해 5계 실천의 중요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 조사에 따르면 불자들은 5계 가운데 가장 지키기 어려운 계율은 '거짓말하지 말라'를 꼽았다. 또 5계 실천을 스스로 평가해서 점수로 환산하면 평균 60점이라고 낮은 점수를 매겨 불자들은 스스로의 행위에 대해 매우 엄격한 윤리적 규범을 갖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생활의 각층 모임에서 5계 지키기를 주제로 토론회를 갖자는 것도 좋은 제안이다. 서울 노

금주의 주제 오계 수지

불자들 생활의 기본윤리 자기와의 약속... 실천이 더욱 중요

할에서는 입문자들에게 1개월에서 6개월 동안 기초교리와 경전공부 등의 과정을 거쳐 치게 하고, 이 과정의 수료자들에게 입문식인 수계식을 행한다. 수계식에서 계사는 5계를 설하고 '받아 지니고 행하겠느냐'는 약속을 받아 계를 내린다. 의정부시 *포교원 신도인 김영호씨(41)는 "연비의 식 때 살갓을 파고드는 따끔함이 신선한 새벽바람처럼 언제나 새롭게 생각된다"며 수계식을 회상하고 "5계를 받아 지니는 것보다 생활속에서 실천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원구 바사 신도 김성호씨(28)는 "가장 지키기 어려운 계는 '왜 지켜지지 않는가' 등의 의문을 내놓고 자기를 점검하는 모임을 일상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불교의 오랜 참회의식인 포살·자자를 신도들에 맞게 재구성, 스님이 주재자가 되어 5계를 다시한번 상기시키고 마음속으로 담하도록 하는 의식의 정례화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5계를 계율을 어기지 않겠다는 자기와의 약속이다. 강요가 아니라 스스로의 마음 움직임을 관할하며 깨달음의 행을 닦아가는 수행이기 때문이다.

즐거·열반절기념 강연

제1회 현대불교 문화강좌개설

현대불교신문은 "즐거·열반절을 기념해 제1회 문화강좌를 3월10일과 14일에 개최합니다. 즐거와 열반의 함축을 새기고 우리의 삶을 보다 건설하게 가꾸어갈 방향을 제시하게 될 이번 문화강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위대한 즐거·깨달음" "눈뜨기 마음열기"



● 강사: 정락스님 (조계종 포교원장) ● 강사: 고은선생 (시인·본지 논설교문)
● 3월10일 오후 6시30분 ● 3월14일 오후 6시30분
● 장소: 한마음불교회관 지하 녹수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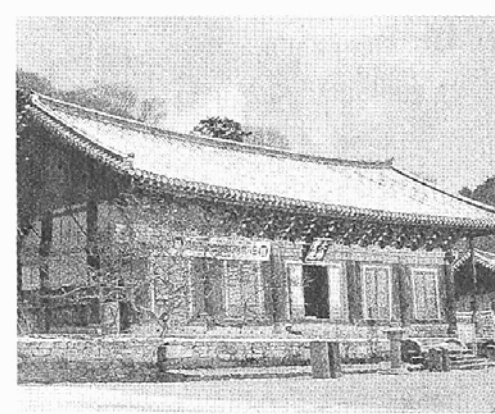
참가 안내
■ 선착순 1백명에 한합니다.
■ 참가자 전원에게는 향방치와 기념품, 책방 여시아문 도서구입 10%할인 쿠폰을 드립니다.
■ 회비 3천원입니다.
■ 문의처: 722-4162, 737-8881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번지 한마음불교회관

현대불교신문사

신행수첩

출가열반정진계승 원각사 철야정진법회

석가모니부처님의 출가·열반일을 맞아 부처님의 뜻을 계승하는 각종 법회가 열리고 있다. 출가정진은 부처님이 인생의 진리를 깨닫기 위해 부귀영화 등 온갖 인간적 복락을 떨친 인류최대의 사건이다. 원각사(주지 법연)는 7~8일 108에참과 탐들이 경근 좌선 찬불가 특별법문 새벽예불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철야정진법회를 봉행한다. 아울러 그동안 추진해 온 중창불사 회향법회도 개최한다. 원각사는 조선 세조에 의해 폐위된 단종의 비인 송씨가 단종의 넋을 기리기 위해 3년 동안 천도기도를 봉행한 천도도장으로 유명하다. (02)742-0085



인도에서 출려한 둘배만의 부처님을 모셨다는 청진설화 기 전해져오는 선운사의 대웅보전.

백제문화유적 찾는해 전남 광주 민학회

타지족 유적지 답사를 통해 문화유산을 비교하고 불교문화 등을 이해하는 지역별 시민문화 모임들의 발걸음이 활발하다. 이들 문화모임들은 대부분 불교유적지를 찾고있어 불교

문화이해와 더불어 신심을 높이는 등 새로운 포교역할까지 겸하고 있다. 광주 전남을 기반으로 문화운동을 펼치고 있는 광주 민학회(회장 박선홍)는 2월25일 정기총회를 갖고 금년을 '백제문화 유적을 찾는해'로 정했다. 민학회는 3월19일 고창 선운사와 도솔암을 시작으로 4월에는 발산리석탑, 죽산리 석탑 등 군산 장영지역 유적지를 답사한다. 이외에도 10월3일에는 익산 마륜사지 답사를

계획하고 있다.(062)-234-5677

직업덜고 깨달음을 감로사 삼천배 참회기도

일상속에 갇혀들다 보면 자신의 삶을 돌아보지 못한 어려운 일이다. 간간히 느껴지는 생활의 느낌마저도 일상에 묻혀버리고 말기 때문이다. 이런 세속생활에서 피곤 몸과 마음의 모든 죄업을 참회하고 자신을 가지던히 추스릴 수 있는 여유를 갖는다는 것

이것이아말로 삶을 살기좋은 좋은 방편이 될 것이다. 이런 뜻을 담고 봄이 오는 길목에서 부산 감로사(주지 이혜홍)는 전국 모든 불자들을 위해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4박5일동안 '삼천배 참회기도'를 봉행한다.

하루 6백배와 세차례의 법문, 도반들과의 나눔 속삭이는 온갖 죄업을 소멸하고 좋은 인연을 맺을 수 있는 깨달음의 한마당이 되기에 흥분할 것이다. 정관스님, 지관스님 등 여러 스님들도 불자들의 깨우침을 돕기 위해 동참한다. 겨울 옷을 벗으며 자신의 허물도 함께 벗겨 될 삼천배 참회기도. '불법이 있어 삶이 행복하노라'고 외칠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이 될 것이다. (051)809-0926

선가 수행의 핵심 광명선원 능엄경 강의

부처님의 근본경전중 수행의 핵심이라할 수 있는 능엄경 강의를 개설하는 배운터가 있다. 불신사 서울포교당인 방배동 광명선원(원장 초격)은 3월9일부터 9월7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전11시에 6개월과정의 능엄경 강의를 마련한다. (능엄경)은 선(禪)과의 관계가 깊기 때문에 우리나라 불교계에서 존중되는 경전의 하나로 자리를 굳혀 전통강연의 교

과목 중 <금강경> <원각경> <대승기신론>과 함께 사교과(四教科)의 하나로 옛부터 학습되어 온 중요한 경이다. 이 능엄경은 밀교인 관공부에 수록되어 인도 나란타사에 비장하고 부처님 열반 후로부터 인도에만 유통되고 타국에는 전하지 못하도록 왕으로부터 엄명이 있어 당나라 이전까지는 중국에 전래되지 못했다고 전해지는 경이다. (02)-584-1108

불성찾는 마음공부 자원봉사자 교육

인간은 모든 일에 양면을 두루 갖추어야 인연한다 할 수 있다. 학과목·지과·행·문과·무·지리와 이타·수행과 포교... 부처님은 이러한 모든 면을 두루 갖추셨으므로 양쪽은(兩尊)이라고도 한다. 수행과 포교, 지리와 이타를 배우고 실천하며 자기속에 숨어 있는 불성을 찾아내는 마음공부를 자원봉사자 시민대학에서 시작해 보는데 어떨까? 불교자원봉사연합회(회장 성덕)에서는 오는 20일부터 6월 21일까지 자원봉사자 불학기 교육을 실시한다. 불교기본교육, 태극수지요법, 환경교육, 원앙생교육등을 실시하게 될 자원봉사자시민대학은 수행과 포교를 위한 재충전의 기회가 될 것이다. (02)723-6258

생활속의 불교 19

“그래 난 결심했어!”

땅 속을 기어다니는 벌레 하나라도 나를 자격이 있으니 나는 것이다. 이 세상에 자격 없이 나는 것은 없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미물까지도, 조목 금수나 무정물까지도 마침내는 부처를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하물며 인간이 어찌하겠는가. 우리는 누구나 다 부처님의 자식이다. 그러나 근본적인 면에서 본다면 성불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

물 은 흐르고 흘러 결국 바다에 도달한다. 흐르다가 어떤 용도로 쓰여져 바다에 이르지 못하고 거슬러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끝내는 바다에 이른다. 그와 같이 인간의 마음도 욕심, 어리석음, 성냄, 망령된 생각 따위로 인해 온갖 우여곡절을 겪겠지만 결국은 성불의 바다에 이르고 말 것이다.



바다에 합류하는 물은 더럽든 깨끗하든 다만 물의 성질 한 가지만으로 합류하는 데 아무런 걸림이 없듯이 우리가 불행이라는 큰 바다에 들기 위해서는 다만 한 가지, 마음 그것으로 족한 것이다. 그런데 이 세상에 마음 없는 사람 없으므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이미 불행의 바다에 들 자격이 있는 것이니 성불이라는 크나큰 행복은 따놓은 당상이나 다름이 없다. 우리가 비록 수억겁을 거쳐 이리저리 방황하며 돌고 돌다가 이 자리에 이르렀다 하지만 모두 다 부처 될 수 있다는 승인을 받아 놓았기 때문이다.

더 구나 우리는 인간의 몸을 타고 났으므로 비로소 수행다운 수행을 할 기회를 맞았고, 성불이라는 최후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 가능성을 지니게 되었다. 문제는 지금 당장 불행에 뛰어들 결심을 굳히는 데 있다.

베파베리아 (VAPOUR BARRIER: 알미늄 보온방습 단열재)

자체개발에 성공!

삼민산업(주)은 그 동안 수입에만 의존해온 고품질 베파베리아의 자체개발에 성공, 의장등록, 실용신안 등록을 마쳤으며 국내 유일의 생산업체 남동과 국외수출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삼민산업(주)이 개발한 베파베리아는 마나, 경이적인 단열 보온효과가 있습니다. 1. 방습·방수 효과가 우수합니다. 2. 실내외 온도를 차단하므로 에너지가 절약됩니다.

남동은 베파베리아 건축용 베파베리아 축사용 베파베리아 단열용 베파베리아 방수용 프릿지 레지용 MAT

삼민산업주식회사 경기도 시흥시 신흥동 시흥로 4 나-19호
전화 0345-498-5533
팩스 0345-498-8928